



승리·정준영 사건 다시보기 | 이슈가 이슈 덮는 시대는 갔다

물타기 NO!...장자연·김학의 사건도 다시 본다

문 대통령 “해당 사건 철저히 조사”
‘성범죄 엄벌’ 사회적 분위기 형성
경찰, 물타 혐의 정준영 영장 신청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 수사를 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을 사건의 공통점이라 지적하며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한 규명,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자연 리스트’·‘김학의 성접대 의혹’·‘버닝썬’ 사건을 가리켰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관련 사건들의 진상 규명을 언급한 바,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유명 클럽 버닝썬을 발화점으로 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30) 등 일부 연예인의 성범죄 혐의, 장자연 사건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등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한편으로는 서로 맞물리며 대형 정치사회적 사건이 터지면 다른 말초적 뉴스로 세간의 관심을 돌리게 한다는 이른바 ‘음모론’이 실제 없는 확증으로 굳어져가는 세태의 시선을 받고 있다.

과연 해당 사건들은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행한 사태”에 해당할까.



승리와 정준영 등 일부 연예인들은 ‘단체카톡방’에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및 공유·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정준영의 혐의를 상당부분 밝혀내고 18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정준영은 2016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의혹을 받았지만 부실한 경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승리도 해외 투자자 성접대 혐의의 단서가 경찰에 포착됐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을 무마하려 경찰과 유착했다는 의심의 시선도 받고 있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소속사의 강요로 유력인사들에 대한 술시중과 성접대를 했으며 자신의 피해 사례와 관련자들의 이름

을 담은 문건을 남겼다. 문건이 알려진 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역시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다. 최근 다시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시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사건들은 여성을 성적 도구와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특히 남성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는다.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성관계 영상을 공유·유포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하였다”(정준영)는 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은 이를 여성에 대한 성 착취로 규정하고,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성 착취·성범죄 카르텔의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정준영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검색하고 피해자를 추측하는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요구했다.

또 일부 연예인의 경찰 유착 등 권력에 기대 불법행위를 감추려는 시도에 대한 사회적 단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는 사건들이라는 시선도 제기된다. 일부 연예인의 경찰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 그동안 재수사 및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18일 결정함에 따라 그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해시태그 컷



‘민낀 여신’ 한효주

연기자 한효주가 굴욕 없는 미모를 과시했다. 그의 피부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윤기가 난다. 특히 한효주 옆에 앉아 사진을 찍어준 것으로 보이는 일본 배우 가라타 에리카와의 우정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를 본 팬들은 “어쩔 이렇게 예쁠까” “근접 샷도 무섭지 않은 미모”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한효주 #빛나는민낀 #화보인생

아시아를 흥린 소지섭 ‘원조 한류스타의 품격’

7개 도시 팬미팅 투어 마무리

한류스타 소지섭이 아시아에서 식지 않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소지섭은 ‘헬로’라는 이름으로 2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시작한 아시아투어를 최근 필리핀 마닐라까지



소지섭

지 돌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일본 지바와 고베,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홍콩 등 아시아 7개 도시에서 현지 팬들의 뜨거운 성원을 이끌어냈다.

아시아 투어를 2016년 이후 3년 만에, 소지섭은 그동안 주연 드라마를 끝내고 투어를 진행해왔다. 이번에도 지난해 출연한 MBC ‘내 뒤에 테리우스’ 인기로 힘입어 무대를 꾸렸다. ‘내 뒤에 테리우스’가 국내 종영 후 일본과 대만 등에서 방영하는 등 출연 드라마가 매번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팬미팅의 바탕을 이뤘다.

드라마 속 캐릭터의 매력이 현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덕분이다. 또 오래 전부터 쌓아온 탄탄한 ‘팬덤’도 팬미팅 무대를 가능하게 했다. 케이팝의 세계적 인기로 힘입은 젊은 스타들의 활약 속에서도 적지 않은 나이의 소지섭이 한류스타로서 과시해온 저력이 여전히 흔들림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대목이다.

소지섭의 소속사 피프티원케이 관계자는 18일 “아시아 팬미팅 투어는 적어도 두 달 정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 작품 출연 중에는 불가능하다”며 “드라마가 끝난 뒤라도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경’ 유착부터 탈세까지...의혹 산더미

(연예인·경찰)

‘경찰 총장’ 언급 윤총경 수사 진행도 승리, 주점 불법 운영 추가 정황도

성매매 알선 혐의의 승리와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정준영 그리고 이들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의혹들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의 발화점이 된 서울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의혹이 첫 번째다. 직원과 손님간 폭행 시비,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와 관련한 경찰 고품수 수사 여부, 성범죄 및 마약 투약과 유포·승리의 실소유자 여부 및 탈세 가담 등 해결해야 할 의혹들이 쌓여 있다.

18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클럽 임직원의 계좌거래 내역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살펴보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VIP룸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과 불법 동영상 상이 온라인 등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그 경위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승리가 한때 버닝썬의 사내이사로 일하면서 일부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실

소유주는 아니었지만, 탈세 의혹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여부 역시 경찰이 수사로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승리 단체카톡방’ 멤버인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이 함께 주점을 운영하면서 각종 탈법과 불법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들은 2016년 서울 강남에서 주점 ‘밀망포차’와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을 개업했다. 두 업소 모두 승리 소유였고, 대화방 멤버들이 다수 경영에 참여했다. 이들은 두 업소를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쟁 업소가 자신들의 업소 내부를 촬영해 경찰과 구청에 여러 번 신고했지만, 윤 모 총경이 해결해줬다는 식의 이야기를 나눠 경찰이 조사 중이다.

윤 모 총경은 승리와 최종훈, 정준영, 버닝썬의 모 회사인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가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소속인 윤 총경은 유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

최종훈 vs 차태현...엇갈린 반응 왜?

법적 대응 vs 즉각 사과 큰 차이 “본질 벗어난 의혹 제기” 여론도

정준영과 승리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예인을 향한 대중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가수 최종훈과 이종현은 거센 비난에 직면했지만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는 일부 동정론을 얻고 있다.

의혹 제기 직후 거짓말부터 내놓은 최종훈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종현과 용준형 역시 정준영과 불법 촬영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선긋기에 급급하다 혐의가 드러나고서야 떠밀려 사과는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

차태현과 김준호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200만 원대 내기 골프를 치고, 이를 정준영이 포함된 KBS 2TV ‘1박2일’ 스마트폰 메시지 단체대화방에 몇 차례 언급했다는 의혹으로 17일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로서 정준영의 불법 ‘물타기’ 영상과 무관해 보이는 만큼 오히려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

난 의혹 제기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엇갈린 반응의 배경에는 해당 연예인들이 사건에 얼마만큼 연루됐는지 여부와 함께 논란 직후 취한 ‘대응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종훈과 용준형 등은 “법적 대응” 운운하며 발끈했지만 불법 행위자 폭로돼 싸늘한 여론에 직면했다. 반면 차태현과 김준호는 “공인으로서 부도덕한 행동”이라며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이와는 별개로 KBS가 왜 자사 대표 예능프로그램인 ‘1박2일’의 주요 출연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돌연 ‘1박2일’ 제작 중단을 결정한 KBS는 16일 ‘뉴스9’를 통해 내기 골프 의혹을 제기하고, “정준영이 대화방에서 때로 성희롱적 발언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여지를 남겼다. 2016년 불법 영상 촬영 혐의로 피소된 정준영을 3개월 만에 복귀시켜 ‘면죄부’ 비판에 휘말린 KBS가 외부에서 먼저 불거져 더 큰 논란으로 번질지 모를 상황을 염두에 두고 ‘1박2일’ 제작 중단 및 관련 보도를 먼저 한 게 아니냐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